

특집: 커피와 건강

커피의 최근 연구동향 및 산업전망

최근표^{1*} · 채동진² · 류재은³¹강원도립대학 식품가공제과제빵과²경동대학교 제과바리스타학과³류재은베이커리

Trends of Coffee Industry and Prospect in Korea

Kun Pyo Choi^{1*}, Dong Jin Chae², and Jae Eun Ryoo³¹Dept. of Food Processing and Bakery, Gangwon Provincial College, Gangwon 210-804, Korea²Dept. of Tourism Bakery and Pastry Arts, Kyungdong University, Gangwon 217-711, Korea³Ryoojaeeun Bakery, Gyeonggi 413-814, Korea

서론

국내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지도 100년 이상 지났다. 국내에서 내국인이 마신 최초의 커피는 1888년 러시아 대사관에서 조선의 26대 왕 고종이 마신 커피다. 그에 앞서 5년 전 유길준이, 4년 전 피셔 로웰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지만 국내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 커피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한성 순보에 가비(咖啡)·가배(加非)라 언급된 것이다. 그 후 최초의 다방, 최초의 노천카페 등이 일제 치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50년대에는 다방문화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대중에게 널리 확산된 식문화는 아니었다. 1970년 동서식품에서 ‘맥스웰 하우스’라는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커피가 판매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커피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1). 그것은 커피문화가 유래된 유럽이나 북미와 달리 원두커피보다 인스턴트커피가 강세라는 점인데 이것은 같은 아시아인 일본과도 비교된다. 일본 자국의 커피 시장 내에서 원두커피와 인스턴트커피 비중이 5:5인 반면 우리나라 커피 시장에서의 비율은 2:8 정도로 인스턴트커피가 월등히 앞선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커피시장의 변화가 찾아왔다. 원두커피 중심의 커피전문점이 증가하면서 전체 커피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글로벌 대표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1999년 국내에 처음 문을 연 뒤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이후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인스턴트커피로 국한되었던 국내 커피시장에 원두커피의 수요증가라는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원두커피 시장의 확산은 커피뿐 아니라 전체적인 식문화의 고급화와 개인 기호화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스턴트커피 시장의 성장이 멈추고 하락세

를 띠는 반면 스페셜티와 같은 고급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두드러진다. 그로 인해 생두 및 원두의 수입이 증가하고 홈카페족의 등장으로 개인 커피용품 시장이 성장하는 등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더불어 원두가격에 대한 관심과 유통마진을 줄여보려는 업계의 노력, 커피전문점의 질적인 성장 등 국내 커피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와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국내 커피시장 동향

커피소비의 고급화

업계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커피 관련 시장규모는 6조 1,65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연평균 국민 커피 소비량은 2013년 기준 약 298잔이며 소비량만으로는 세계 6위에 해당한다(2). 2014년 7월에 발표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커피의 총 수입량은 9월에 이미 10만 톤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이룰 전망이다(3).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 커피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은 커피전문점의 확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단순히 커피를 음료로 즐기거나 커피문화나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하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커피의 맛이나 질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소비가치 등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4). 하지만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로스터리 카페, 드립 및 더치 커피전문점이 증가하고 있다. 커피 맛 자체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이것은 커피뿐 아니라 식품 전반에 불려온 Well-being 문화의 영향이며 다이어트, 미용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커피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그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의학

*Corresponding author

E-mail: kunpyochoi@hanmail.net, Phone: 033-660-8233

잡지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게재된 ‘커피와 차, 당뇨병 그리고 체중감소’에 따른 보고서에서는 커피, 차에 포함된 카페인 성분이 당뇨병 및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5). 또 커피나 차 안의 카페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DNA의 손상을 억제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6). 커피성분의 이러한 미용 기능성에 대한 해외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진 가운데 미국, 브라질에서는 커피를 이용한 화장품, 의약품, 여성용품 등이 시중에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커피시장의 변화

최근 하락세를 띠고 있지만 인스턴트커피(조제커피, 솔루블(Soluble)커피, 커피음료)가 국내 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가까울 정도로 여전히 크다. 인스턴트커피인 솔루블(Soluble) 커피에 설탕과 크림이 들어간 조제커피는 ‘믹스커피’라 하여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1조억 원이 넘는다. 인스턴트커피 시장의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에서 2011년 9월 솔루블커피에 원두커피의 향을 첨가한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를 출시하고 3년 만에 2014년 연매출 1,000억 원대를 넘어섰다(동서식품 발표). 조제커피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인스턴트커피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또한 인스턴트커피에 사용되는 생두는 대부분 베트남,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며 가격이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 스위스 등에서 수입하는 원두의 비중은 전체 수입물량 중 10% 정도인데 2000년대 후반부터 원두커피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시장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커피시장에서 2007년 21.0%에서 2012년 56.2%로 커져 원두커피의 수입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4).

관세청에서 2014년 발표한 커피 형태별 수입비중을 보면(그림 1) 조제품의 비중이 줄고 원두와 생두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고품질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원두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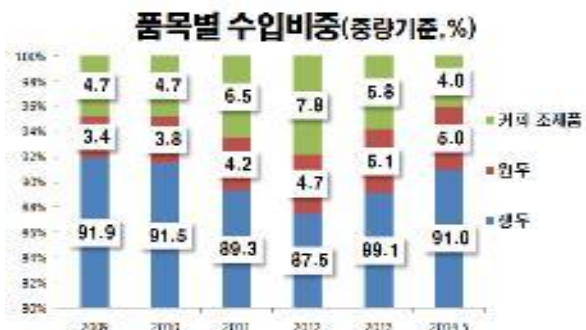
하지만 커피전문점의 경우 외형적인 성장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지난 2~3년 간 국내외 브랜드의 출점 경쟁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러 매장 수에 비해 매출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업계에서는 스페셜티 커피사용, RTD 음료시장으로의 진출, 디저트 메뉴 개발 등 다양한 경로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는 미국 스페셜티커피협회(SCAA)의 엄격한 분류기준을 적용해 재배부터 수확, 생두 신선도, 수분율 등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상위 10%에 드는 고급 원두를 사용한 커피다. 한 잔에 평균 6~7천 원 정도의 고가이지만 커피 원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문점이 점차 늘고 있다(7).

카페 코나퀸즈(주)의 하와이안 프리미엄 커피전문점 ‘카페 코나퀸즈(cafe KONA QUEENS)’는 신선한 커피 원두를 매장에서 매일 직접 볶는 로스터리 카페라는 차별점을 내세워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고 있다. 2014년 6월 할리스커피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 브랜드 ‘할리스 커피클럽’ 1호점을 오픈하며 스페셜티 커피시장에 뛰어 들었다. 파스쿠찌를 운영 중인 SPC그룹도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커피앳웍스(Coffee@Works)’를 오픈했다. 또한 11월 엔제리너스커피도 ‘엔제리너스커피 스페셜티’ 매장 1호점을 오픈했다. 이곳 역시 매장 관리자 전원을 큐그레이더로 배치하고 커피 전문가인 큐그레이더가 손수 내려주는 맞춤형 커피라는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8).

한편 편의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RTD(Ready To Drink, 구입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캔·컵·병 등의 형태로 된 모든 음료) 커피시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기존의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대기업 커피 가공업체들이 선점하던 RTD 시장은 최근 프리미엄 커피 음료 열풍이 불면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커피 전문 브랜드 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RTD 커피로 만들어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데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먼저 스타벅스는 동서식품과



(출처: 관세청 최근 커피 수입 동향, 2014.7.4)

그림 1. 커피 형태별 수입비중



(출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및 동아일보)

그림 2. 커피전문점 매장수 및 평균매출액

2005년 스타벅스 RTD제품의 수입·제조·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RTD 커피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할리스커피도 지난 2011년 동원F&B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12년 3월 첫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RTD 커피시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 밖에도 탐앤탐스, 카페베네가 각각 광동제약과 웅진식품과 제휴를 맺고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예정이다(9).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홈카페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최근 커피시장의 특징이다. 이들은 시중 커피의 비교적 높은 가격과 규격화된 상품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저렴하고 다양한 맛의 커피를 즐기려 한다. 특히 젊은 층을 필두로 규격형 원두커피, 캡슐커피머신, 개인용 커피용품시장이 온라인에서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매출이 커지는 것은 단순히 국내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다. TechNavio의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커피 판매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며 커피회사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한다(10). 커피 생산량은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날씨나 커피나무의 전염병 등 자연재해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의 폭을 예측할 수 없는데 최근 브라질, 베트남 등 최대 커피 원두 생산지에서 생산량이 점차 감소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11).

커피산업의 전망

관세청이 발표한 2014년 7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커피 수입 90%에 달하는 생두 수입 단가가 하락하면서 2013년 대비 커피 수입액은 감소했지만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되는 원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커피제품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커피소비의 고급화와 맞물려 원두커피 시장의 확대와 인스턴트커피 시장의 감소세는 앞으로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맞춰 인스턴트커피업체의 선두인 동서식품은 먼저 아라비카 원두 사용을 시작했고 이어서 스틱원두커피 즉, 인스턴트 원두커피를 출시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인스턴트커피는 국내에서 하락세를 보이지만 해외시장은 다르다. 국내에서 가공된 커피 제조품은 가공식품부문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커피제조업체인 남양유업이 믹스커피 원료를 가지고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 국내 커피 제조품의 수입이 감소세를 띠고 있는 반면 국내 커피 제조품의 역수출로 인한 수익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12).

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매장 수는 줄어들었지만 커피 원두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전략으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RTD를 중심으로 한 커피음료 시장은 프리미엄 커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차 가격이 상승되고 있지만 제조 및 유통의 장점으로 여전히 커피전문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고 확대될 것이다.

홈카페족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온라인 시장 역시 점차 규모가 커질 것이며 로스팅 후 산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커피의 특성상 가공업체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긴 유통 경로보다는 개인 카페가 직접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현상도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3).

결론

국내 커피시장은 앞으로 규모보다는 개인의 기호에 맞춘 다양화와 고급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약 80여 개국에서 커피가 수입되고 있지만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3개국의 커피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 커피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지의 커피가 고른 비중으로 수입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더불어 커피의 합리적인 가격책정과 저렴한 원두로 만든 인스턴트커피가 아닌 질 좋은 커피가 식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국내 커피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인스턴트 원두커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 비싼 원두커피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비슷한 맛과 향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처럼 커피 맛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고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2014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국제커피기구(ICO) 로베리오 실바 위원장은 공정한 커피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계 곳곳의 커피 재배 농부들에게 커피 수요량을 알려줘 생산량을 조절하고 생산자와 판매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14). 최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업계에도 질 좋은 커피를 대형 체인 커피전문점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브랜드가 등장하였고 ‘착한커피’라는 타이틀로 자영업자 중심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커피시장에는 가격의 거품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규모에 있어서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바른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개발과 시도로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북미 등에 커피제조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겠다(15).

참고문헌

1. 최여진. 2014. 근대 한국 커피문화 공간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익산, 전북. p 21-49.
2. 이명환. 2013. 커피수요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아산, 충남. p 8-17.
3. 관세청. 2014. 최근 커피시장 수입동향.
4. 최예미. 2013. 소비가치가 라이프스타일 및 커피전문점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p 17-43.
5. Greenberg JA, Axen KV, Schnoll R, Boozer CN. 2005. Coffee, tea and diabetes: the role of weight loss and caffeine. *Int J Obes* 29: 1121-1129.

6. Heffernan TP, Kawasumi M, Blasina A, Anderes K, Conney AH, Nghiem P. 2009. ATR-Chk1 pathway inhibition promotes apoptosis after UV treatment in primary human keratinocytes: potential basis for the UV protective effects of caffeine. *J Invest Dermatol* 129: 1805-1815.
7. 상위 10% 원두 내세워...커피시장 제3의 물결. <http://www.hankookilbo.com/v/625976eab4c24b368680e717dfd0d2a8>.
8. ‘스페셜티 커피’ 경쟁 치열...차별화된 맛으로 승부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12/20141212001969.html>.
9. 커피전문점도 불붙은 RTD 커피 시장.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5149>.
10. Coffee market in the US 2014-2018. [http://www.technavio.com/report/coffee-market-in-the-us-2014-](http://www.technavio.com/report/coffee-market-in-the-us-2014-2018)
11. 베트남도 생산량 줄어 ... 커피 원두 가격 상승 전망.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5/2014112500785.html.
12. 남양유업 ‘철웅성’ 유럽 가공원두커피 시장 뚫었다. <http://www.fnnews.com/news/201411171751252931>.
13. 한국이 커피에 풍덩... 주당 12.3잔. http://www.yonhapmidas.com/lifeeconomy/click/2014-12/141207221029_190707.
14. 국제커피기구 로베리오 실바 위원장 “한국 커피시장 성장 가능성 크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72457&code=61141111&cp=nv>.
15. 홍제국. 2013. 한국 커피시장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주. P 10-18, 45-55.